

2023년 성녀 카타리나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자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을 맞이합니다. 이는 성녀의 마음과 삶 안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주제인 구원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수녀회의 교회법적 설립 90주년 기념이 되올리고 있는 이 순간에, 성녀 카타리나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봉사에 투신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녀는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언제나 교회를 사랑할 줄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자주 일그러지고 찢어진 그 몸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황님 안에 그리고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갇힌 이들, 사제들, 가족들 안에, 그리고 비록 세속적이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해도 교계 제도 안에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아보면서, 실제로 “손을 더럽힐”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녀 카타리나가 자신의 손으로 만졌던 교회, 성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교회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삼위일체의 심연에서 하느님을 누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 문은 거룩한 교회 밖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녀 카타리나가 살았던 현실이 우리 자신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자신 안에서, “일그러지고 찢어진 주님의 몸”을 보여주는 상황들을 열거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 빛을 유지해 온 90년을 기념하면서 약속한 새로운 투신으로 이를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잘못들을 지적하거나 그 원인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성녀 카타리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용서, 화해, 평화라는 건설적인 가치들을 사방으로 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카타리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악들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인간과 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의 관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성녀의 신앙과 하느님 체험은, 고통받는 형제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게 했습니다.

카타리나에게는 현대의 소통 수단들도 없었지만, 성녀의 설교는 더 강력했습니다. 하느님 자신이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제나 작용하고 있는 그분의 자비를 전하도록 그분께서 부르시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이기도 합니다.

성녀 카타리나가 “모든 변화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마음 안에서 상호 보완과 형제애가 뜨거워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확고하게 간직하며 주변 세계 앞에서 자신의 삶과 말과 모범으로 외치는 복음은, 세상과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성녀 카타리나의 모범과 전구가 우리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봉헌의 열성을 활기차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쁜 축일을 기원합니다.

형제적인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En la Asunción González OP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